

인 적 사 항

1. 성 명(국문) : 김홍기

(한문) : 金洪起

2. 생 년 월 일 : 1960. 11. 27

3. 현 직 : 한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4. 학 력 :

서울대학교 경제학 학사(1983)

서울대학교 경제학 석사(1985)

서울대학교 경제학 박사(1992)



5. 주요경력 및 연구업적 (5개항 이내) :

경 력 :

- ① 한국국제경제학회장(2022)
- ② 한국경제학회 부회장(2020)
- ③ 한 남 대 학 교 부 총 장 (2020~2021)
- ④ 채권금융기관조정위원장(2015~2016)
- ⑤ APEC MESG(소기업) 의장 (2004~2005)

연구업적 :

- ① Panel Cointegration results on International capital mobility in Asian countries(with K.Y. Oh)(2008), *Journal of International Money and Finance* 24, 71-82
- ② The Purchasing Power Parity of Southeast Asia countries: A time varying coefficient approach(with B.H. Kim and K.Y. Oh)(2009), *Economic Modelling* 26, 96-106
- ③ The Sustainability of Current Account Deficits and Currency Crises in Selected East Asian and Latin American Economies(2000), *Korean Economic Review* 16, 43-57
- ④ The Optimal Leverage Ratio of Credit Guarantee Institution: Case of Local Credit Guarantee Foundation in South Korea(with G.H. Jeon and E.H Park))(2022), *International Economic Journal* 6, 402-417
- ⑤ 소기업·소상공인 신용보증지원제도: 현황과 효과(김상환 공저)(2016), *한국경제의 분석* 22, 47-99

자기 소개서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우리나라 경제학자들을 대표해 온 한국경제학회 수석부회장으로 추천되어 개인적으로는 매우 큰 영광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두렵고 떨리는 심정입니다. 존경하는 한국경제학회 회원 여러분께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충북 현도에서 태어나 서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79학번으로 대학에 입학하였습니다. 그 당시 한국은 압축성장의 과정 속에서 발생한 다양한 문제들로 매우 힘들어하는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학부와 대학원 시절을 돌이켜 보면 훌륭한 선생님들의 가르침과 선후배 동료들 간의 활발한 토론으로 경제현실의 다양성을 이해하게 되었고 경제학에 관심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특히 당시 우리나라는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전략을 채택하여 국제경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 자연스럽게 국제경제학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 많은 경제학도들과는 달리 국내 박사과정을 진학하였고 그 후 현재 재직 중인 한남대학교에서 교수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저의 연구 분야는 국제금융을 포함한 국제경제학에 대한 실증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지만 10여 년 전부터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 대한 연구에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 꾸준히 연구 활동을 해온 결과 50여 편의 논문이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되었습니다.

저는 교수 생활을 하면서 Fulbright Scholar로 미국 오레곤대학교에서 교육과 연구를 수행하였고, 태국 AIT(Asian Institute of Technology)에서 아세안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한 경험도 가졌습니다. 또한, 연암재단의 도움으로 미국 인디애나 대학에서 연구에 전념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글로벌화에 따른 문제에 대해 더욱 심도있게 고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제게는 다양한 봉사활동을 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학교에서는 학장, 교무처장, 기획처장과 부총장을 역임하면서 대학, 특히 사립대의 어려움과 문제점을 체험하였습니다. 사회봉사활동으로는 채권금융기관조정위원장, 금융발전심의위원, IBK캐피탈 사외이사, 한국연구재단 사회과학분야 전문위원, APEC MESG(소기업) 의장, 중소벤처기업부의 자체평가위원장, 규제심사위원장 등 다양한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였습니다. 학회 활동으로는 한국국제경제학회장, 한국개발정책학회장, 한국경제학회 부회장, 한국경제학회 충청지회장 등을 역임하였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시각의 다양성과 복잡한 이해관계, 나아가 문제해결방법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최근 한국국제경제학회 회장을 역임하면서, 학회에 속한 회원들과 소통하며 학문발전을 위한 활동을 지원하는 소중하고도 보람 있었던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각 계에 계시는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학회 영문학술지 발전기금을 조성하고 학술활동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짧게 제 소개를 드렸습니다. 제 소개를 하면서도 학문적으로나 인격적으로 부족함을 많이 느낍니다. 하지만 저의 부족한 부분은 회원님들의 협조와 지원으로 메꿀 수 있다고 믿고, 한국경제학회 수석부회장으로 선출된다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지역과 세계와의 연결을 통해 미래로 나아가는 한국경제학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 약 사 항

한국경제학회는 존경하는 명예회장님들과 회원님들의 노력으로 끊임없이 발전해오고 있습니다. 제가 수석부회장으로 선출된다면 학회의 기존 사업과 사업계획을 계승하면서 『지역과 세계와의 연결을 통해 미래로 나아가는 한국경제학회』를 목표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 중요한 경제 이슈에 대해 경제학계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대변

세계는 현재 역사적 전환의 시기인 듯합니다. 글로벌화는 크게 후퇴하고 있고 자국 우선주의의 포퓰리즘 정책이 전세계적으로 성행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단견적 시야로 사회경제정책이 크게 왜곡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경제학회는 학문의 발전과 함께 현실 경제문제에 대한 대안 제시라는 미션을 지닌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기후위기, 불평등, 저성장, 국가 및 가계부채, 금융위기 문제 등의 민감하면서도 중요한 이슈들에 대해서 경제학계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대변하여 중장기적인 문제해결에 나서겠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연구비를 조성하여 연구 프로젝트를 발주하는 방법도 추진하고, 관련 학회와 공동으로 영향력 있는 정책세미나를 기획하고 개최하겠습니다.

2) 줌 및 소규모 세미나 활성화 등의 다원적 연결을 통한 연구의 포용성 강화

비대면 학술 교류 활동은 지리적 혹은 시간적 제약이 많은 학자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재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한미경제학회의 세미나를 분기별로 줌을 활용하여 개최하여 보다 많은 학자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 일본이나 유럽 등의 학회와 협력하여 해외의 학자들과 활발히 교류할 수 있는 세미나로 확장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3개 지역지회가 각자 개최하고 있는 학술활동을 매년 한 번씩 본부와 공동으로 지역을 순회하며 개최하여, 지역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하겠습니다.

3) 소장학자들의 적극적 학회참여 기회 확대를 통한 학회의 역동성 제고

현재 학회의 중추인 평생회원들의 대부분이 50대 이상의 중진학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학회의 많은 활동이 중진 이상의 학자들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학회의 역동적인 활동을 위해서는 소장 학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장학자들의 학회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소장학자들에 대해서 평생회원 가입시 가입비를 우대하고, 신진학자들의 연구능력 증진을 위해 학회차원의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 경제 교육 강화를 통한 경제학의 대중화

경제의 건전성과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지속가능하면서도 균형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들이 경제에 대한 일정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경제학은 대체로 어렵고 이해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중고등학교에서의 경제교육도 폭이나 깊이가 제한적이어 학생들의 경제에 대한 이해도도 높지 않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일반 국민들이나 중고등학생들이 흥미롭게 경제학을 이해하도록 한국경제학회의 경제학교육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나아가 이 위원회를 중심으로 유튜브나 학회 홈페이지 동영상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경제학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5) 한국경제학계의 세계적 위상 확보를 위한 World Congress 성공적 개최 준비

세계경제학자대회가 2025년 8월 서울에서 개최됩니다. 현재 준비위원회가 이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는데 학회 차원에서도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개최일이 가까워짐에 따라 2024년에는 더욱 더 많은 일들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준비위원회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학계만이 아니라 정부와 공공기관, 기업들과의 접촉 확대를 통해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세계경제학자대회가 경제학 분야의 최대 국제대회인 만큼 세계 경제학자들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학자들의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경제학계의 세계적 위상을 높이고 나아가 우리 경제학계가 세계적 수준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